

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체계적 운영,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실있게 준비 중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1.19.(일) 서울경제(인터넷), ““육아+집안일 안돼”...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내 못 오나”

2. 설명내용

-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송출국과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, 가사관리사 직무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재 송출 후보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임

* 시범사업 시행 시기(9.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): 연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되 송출국과의 협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- 이번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수요조사, 공청회,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,

-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,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인증기관 방식*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,

*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, 이용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(「최저임금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 적용)

-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, 보완해나갈 계획임

- 아울러, 한국어시험(EPS-TOPIK) 및 영어면접을 통해 언어능력을 적극 검증하고 복잡한 민원의 경우 인증기관의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할 계획

- 한편, 정부가 바우처 등 지원을 통해 월 100만원 수준으로 서비스 가격을 낮추려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- 또한,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관련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, 이동 및 생활편의성, 숙소비용, 관계법령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임
 - 서울시,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하여 가사관리사 인권보호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상임 (044-202-7157)
		담당자	서기관	이재인 (044-202-7145)